

석유업계 리더로서 역할 강화해야



김 상 환
〈월간 주유소 취재팀장〉

최

근 석유업계를 둘러싼 환경변화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5년동안 석유협회를 지켜본 석유인의 한사람으로서 업계발전을 위한 석유협회의 기여도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각 정유사간의 경쟁에 따른 이견조정이나 석유에 대한 대국민 홍보노력, 유가연동제 때의 가격발표, 신속한 해외정보 제공 등 그동안 석유협회에서 소리없이 업계발전을 위해 해온 일들은 참으로 많다. 이렇듯 업계발전의 숨은 공로자라 할 수 있는 석유협회는 석유산업의 개방화·자유화시대를 맞아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석유협회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강화시켜야 한다.

첫째, 석유업계의 리더로서 석유협회를 개방하라는 것이다.

현재 상당수 석유업계 종사자들은 석유협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 알고 있다해도 정유업계를 대변하고 홍보하고 있는 단체 정도다. 석유업계 관계자들이 이 정도라면 주유소업자나 일반 소비자들은 석유협회의 역할에 대해 거의 모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석유협회는 좀더 적극적으로 석유업계 종사자는 물론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협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둘째는 유가자유화 이후의 업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다.

작년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다. 일명 특석법 폐지로 휘발유 수입 자유화가 이루어지자 일본내 휘발유가격에 대

한 기사가 연일 신문에 게재되었다. 국제가격보다 비싼 일본내 휘발유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이를 보다 못한 석유연맹은 정유사와 주유소 등과 함께 세금이 휘발유 가격의 50% 이상 점하고 있음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그 결과 소비자들이 왜곡된 유류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고, 석유업계는 그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 일로 일본의 주유소업자나 소비자들은 석유연맹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확실히 알았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예는 현재 소비자들이 왜곡된 시선으로 석유업계와 유류가격을 바라보는 우리 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유가자유화 실시에 따른 석유협회의 역할증대를 위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정유업계 뿐만 아니라 주유소, 소비자와 함께 하는 석유협회가 되어야 한다.

세째는 정부의 석유정책 조언자로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롭게 변하는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석유협회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실제 시장의 상황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정책수립에 조언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석유인의 한사람으로서 석유협회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크다. 무엇보다 석유업계를 이끌어가는 단체로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 ☺